

영남대, 개도국 산림 전문가 양성 '본궤도'

임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교육·인턴 프로그램 등 운영

영남대(총장 노석균)가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원장 박승우)은 최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개발도상국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 및 국제산림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선진 산림기술 전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림 정책 인턴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의 산림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시설 및 연구 장비 공동 활용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우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개도국 산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최근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남대 제공〉

원장은 "198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는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온 가장 좋은 사례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사업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남대는 지난 7월3일 개발도상

국 환경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마을운동과 환경정책 개발 분야에서 두 기관의 전문성을 모으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박종문기자 kjim@yeongnam.com

알/림

동양고전의 향기에 취해보세요

영남일보의 동양고전연구회 주관으로 9월1일~12월14일 15주 과정의 '제38기 동양고전 강좌'를 개강합니다. 이번 강좌는 '주역' '중용' '논어' '영문주역' '술과 문화' '고문진보' '당시(唐詩)' '선현들의 좌우명 읽기' '초서(草書)' 등 총 9개 과목의 강의로 짜여 있습니다. 동양고전에 관심은 있으나 어려운 한문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 좀 더 깊이 있는 고전을 접해보기를 원하는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9월1일~12월14일 □장소: 동양고전연구회 교육관(대구 수성경찰서 동편) □접수: 9월1일까지 은행 온라인 접수 □입금계좌: 대구은행 025-04-000526-2, 예금주 <사>동양고전연구회 □수강료: 과목당 10만원 □문의: (사)동양고전연구회 (053)754-0025-6



이경혜 조호철 남민수 장윤기 박용구 장세후 신재환 이창우 전일주

□강좌내용

중용	주역	논어	영문주역	술과 문화	고문진보	應時(당시)	선현들의 좌우명 읽기	草書(초서)
이경혜	조호철	남민수	장윤기	박용구	장세후	신재환	이창우	전일주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남대강의 교수	변호사	경북대 명예교수	영남대 겸임교수	경북대 퇴계연구소 선임연구원	영남대 명예교수	영남대 강사

주최: 영남일보 주관: 사단법인 동양고전연구회